

다산포럼

우병우 사태를 보며



고 세 훈  
고려대 명예교수

하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말했던 것은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면서였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종자’라며 내치는 나치 전범들도 특정의 상황적 계기가 만든 것일 뿐, 실은 우리 모두 그저 운 좋게 살아온 잠재적 범죄자일지 모른다. 그래서 너무나 없이 우리는 변명과 회피, 비난과 책임 전가, 희생양 만들기에 그리도 분주한가 보다.

존 스타인벡의 말년 작품인 ‘에덴의 동쪽’은 그곳으로 추방당한 카인의 그런 후에들 얘기다. 거기에서 악은 악한을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으며 가장 선해 보이는 사람들-해밀턴이나 애덤 트래스크 같은-에게도 끈질기게 달라붙어 낙인을 찍고 거기에 지문과 자취를 남긴다.

그리하여 우리는 가능하면 근본적인 질문을 잊어야 비로소 편안해지는, 딜레

마의 세월을 살고 있다. 구원의 희망을 묻지 말아야 하거나, 구원자는 우리의 달콤한 일상을 간섭하고 트집 잡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죽음을 직시하기보다는(Memento Mori) 현재를 즐기는 쪽을 택하고는(Carpe Diem),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그림수록 종래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가령 쇠렌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불렀던 절망이요, ‘자유의 헝기증’이라 빗댄 그 불안이다.

“더티 해리”(Dirty Harry, 1971)의 지식인 판이라 할 수 있는 우디 알렌의 최근 영화 ‘비합리적 인간’(Irrational Man, 2015)에는, 칸트에서 현상학까지 모든 이론을 섭렵했지만, 성적(性的) 불능에 이를 정도로 초점 없는 일상을 보내던 젊은 철학 교수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마침내 그는 스스로 판관이 되어 자신이 악으로 규정한 현실의 한 판사를 살해함으로써, ‘행동’을 통해 구원을 얻었노라 스스로지만, 정작 자기 행위가 폭로될까 전전긍긍하며 자신을 송배하던 제자마저 죽이려 노심초사하는, 시경에 날린 치사한 잡매일 뿐이었다. 과연 일상의 힘은 대단한 것이어서, 거짓 구원자가 그의 일상을 깨버린 순간 그 자신의 파멸은 시작되고, 따르던 제자는 다시 불안과 안온이 없이 없이 교차하는 원래의 일상으로 복

귀한다. 원초적 욕망에 갇힌 인간의 비극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페라다(오페라는 대부분 비극이다). 특히 베르디가 셰익스피어 원작을 무대에 올린 ‘맥베스’에선 주인공 맥베스 역에 바리톤을 세움으로써-오페라의 남자 주역은 대체로 테너 뉘이다-비극적 전조를 한층 고조시킨다.

조지 오웰이 ‘파시스트 독재자의 중세적 변형’이라 불렀던 맥베스란 인물은 배반, 살인, 반역의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아가면서 시간과 더불어 잔인성을 더해가거나, 출세를 위해 행한 첫 번째 살인 뒤의 더 악독해진 잇단 살인들은 자기방어의 차원에서 저지른 것이었다.

아마 ‘맥베스’의 최대 매력은 일상의 본질을 주목한 데 있을 터인데, 그의 곤경은 동료들보다 조금 앞서가고 조금 더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는 우리 모두의 일상에 밀착해 있다. 외양은 전혀 사악하다고 볼 수 없는 인간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악한으로 화하며, ‘이반이 마지막’이라며 다짐하지만, 하나의 범죄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진다.

인간이란 원래 그렇다고 체념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에겐 악의 효과들을 최대한 줄여서 최소한의 삶의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를 그나마 견딜 만한 것으로 유지

시킬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정치도 만들고 민주주의를 통해 타협의 단초도 열며 피차의 윤리적·인식적 불완전성을 보완해 보려는 것 아니겠는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호언하며 시작한 정권이였다. 섬뜩하고 불길했으니 세월이 말해 주려니 했었다. 그 3년여, “밴드는 없고, 트럼펫은 소리 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녹음이다. 테이프다.”(데이빗 린치 감독, ‘멀홀랜드 드라이브’(Mulholland Dr., 2001) 정치는 저 혼자 배회하고 민주주의는 제멋대로 표류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호된 편견과 막무가내 외길만을 줄기차게 고집한다. 마름도 좋고 흉위병도 마다치 않는 저 겹고 두꺼운 얼굴들, 그런 부류가 청와대건 청문회건 권력 주변 어디서나 서성이는 것이 그래서 우연일 리 없다.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나 성(性)의 자유만은 누리고 싶다. 그래서 나는 신이 없는 쪽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카뮈의 선택은 적어도 정직했다. 피의 흔적과 냄새를 지우려고 손을 씻고 또 씻으며 “한번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구나!” 탄식하던 맥베스 부인이엔 그래도 죄의식과 양심의 고뇌가 있었다. 맥베스라고 비극적 결말을 몰랐으랴. 감히 이들과 견줄 수는 없는 일이되, 최근의 우병우 사태를 보며 찌찌뜨뜨 떠오른 새삼스러운 생각들이다.

정춘 특·특

청춘자기소개서 : 제 절망을 소개합니다



박 준 성  
광주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는 코스모스 졸업하면 영기는 것이 있을 테니 한 학기 휴학하고 좀 쉬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고 말했죠. 부모님은 아들이 불쌍했는지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휴학한 6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여행? 아르바이트? 새로운 배움? 하하. 저는 정말로 제가 한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외식(偽食)생활을 했습니다. 자취방의 침대에 붙어 있다가 피 생활했습니다. 집 밖은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좋았었죠.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가끔 글을 쓰고 가끔 책을 읽고 개인도 갈썩갈썩 하며 지냈습니다. 이 당시 먹고 싶은 것은 꼭 먹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딱딱딱 잘 쟁겨 먹으니 살은 더 불어났죠.

관여롭게 반년을 살다 보니 이것도 습관이 되었어요.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잉여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대학원을 택했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의도를 모르셨어요. 학교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아 대학원에 다녔기에 “그래도 우리 아들이 부모가 해준 것도 없는데 자기 살길은 알아서 찾는다” 하셨어요.

그렇게 대중대중 살던 어느 날, 취직한 후배를 만났어요. 자선관리사가 된 후배가 저의 미래에 대해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결국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있으려면 계획이 있어야 한다. “형 내가 설계를 좀 해줄게”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던 후배는 “이 사람이 뭐가 있어야 설계를 하지”라는 말과 함께 설계불가와 눈총을 받았고 결국 입사 한 달 만에 할당치를 채우지 못해 잘렸습니. 다. 슬펐습니다.

이 일로 “나는 지금 절망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TV에서 보던 절망하는 20대 청년이 나왔더니. 처음 태어났을 때는 심장이었는데 지금은 돈이 심장이 되어 버려서 죽어가는 느낌입니다.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저는 아무 것도 욕망하지 않았습니. 새로운 관계 혹은 이루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미리 포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슬펐습니다. 정말로요. 스스로 무생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불안했고, 그래서 두려웠고, 그렇게 지레 겁먹은 저는 똑같은 하루를 반복 해 왔습니. 저에게 정춘은 없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가능성을 제 좁은 자취방에

가두었습니다. 군대에서 처음 헬기레벨 했을 때 이후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기 전의 두근거림 같은 것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인다”라는 흔한 명언이 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가능성을 실현해보려는 의지가 저에게 없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라면서 말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안정적인 것이 최고다”를 부르짖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저를 불안하게 합니다. 장학금을 제외하고 학교에서 주는 월급 15만원과 부모님의 지원에서 야금야금 돈을 타 쓰는 것에 만족하려 하는 잉여인간 박준성은 세상이 무섭습니다.

요즘 저는 ‘가능성 노트’를 적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들을 적는 노트죠. 예를 들자면 “국악악기로 헤비메탈을 해보면 어떨까?”라든지 “커피에 어떤 것을 섞어주면 새로운 맛이 날까?”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반복되는 절망에 가능성과 욕망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 생각하며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숲이 될 노트를 보며 이제는 심장으로 세상을 살아 가보려 합니다.

기 고

해남 옥매광산 피해자 위령비 건립 바란다



이 유 진  
전남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2학년

쉽지 않다는데 안내를 맡아주시는 해남옥매광산수몰광부 유족회 박철회 회장님 덕분에 편히 들을 수 있었다. 한편으로, 이동한 곳은 옥매광산이었다. 옥매산은 175m밖에 안 되는 높이지만 경사도가 크고 돌이 많아 오르기가 매우 힘들었다. 옥매산 곳곳에 돌탑이 103개가 쌓여있는데 앞으로 118개까지 쌓을 계획이라고 한다. 돌탑은 수몰 광부 피해자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위령비 대신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단단한 바위들이 여기저기 계곡처럼 파인 옥매광산 정상은 강제징용 조선인들의 모진 노동을 확인시켜주었다. 누가 ‘한국 그랜드캐니언’이라고 말했다는데 실제 그랜드 캐니언과 옥매광산의 파헤쳐진 모습을 비교하니 기분이 씁쓸하였다. 더군

다나 정상에는 일제가 박은 쇠망턱을 빼고 세운 작은 기념비까지 있었다. 이어서 이동한 곳은 옥매광산에서 권 명반석들을 일본으로 옮기려고 지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과거 바다로 레일로 연결된 부두였다. 옥매광산 징용피해자들은 이 부두에서 제주도 요새와 노동에 또다시 강제징용 당하였다. 그런데 해방을 맞아 제주도에서 배로 돌아오던 광부들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고가 일어났다.

해남 옥매광산 광부 수몰사고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징용피해 사건이라고 한다. 배에서 일어난 화재로 118명이나 바다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였다. 더 많은 생존자가 있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었다. 다들 가족에게 주려고 곡

식자루들을 가지고 닳았는데 바다에 빠진 뒤에도 머리카락이 목에 이고 지며 끝까지 버텼다는 것이다.

돌처럼 무거워진 곡식자루를 포기하지 않으려다 결국 힘이 빠져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만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강제노동피해자들의 이야기보다 더 안타깝고 또 화나는 것은, 희생자들을 위해 위령비라도 세워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에도 아직까지 국기가 나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비록 고등학생이라 큰 힘은 못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위령비를 세우지 못해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계신 유족회 장님과 유가족 분들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

社 說

시의회, 채용비리 방지 조례 왜 미적거리나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광주시의회가 채용 비리 예방을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이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한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최근 ‘광주시교육청 사립 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공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다음 회기로 넘겼다. 채용을 둘러싼 금품 수수와 유착 근절을 위해 교육청에 임용 절차를 위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를 권장하도록 하는 조례가 석연치 않은 반대 이유로 물 건너갔다. 벌써 세 번째인데 일부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한다.

반대를 하는 의원들은 영통한 이유를 대고 있다. 채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사립학교 측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항의가 많다”라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사립학교들이야 애초 위탁론이 나왔을 때부터 ‘자율성 침해’를 들먹이며 거부했었다. 사립학교에 매년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탁 채용의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사립학교에서는 그럴 경우 학교 운영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며 번번이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비리 발생 개연성이 상존한다.

조례안은 학교 측의 신청에 따라 위탁 여부가 결정될 뿐 강요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수준이고, 이미 대전에서는 시행 중이라고 한다. 따라서 시민 정서와 어긋나는 이들 의원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잇을 만하면 채용 비리가 터지는 상황에서 개선을 촉구해야 할 시의원들이 무슨 연유에서 거꾸로 가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립학교 법인들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사립학교 측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항의가 많다”라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사상 최대 체임…빈손으로 맞는 슬픈 한가위

앞으로 일주일 남짓만 지나면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게 된다. 모두 잘 마무리해야 할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한숨을 쉬는 이들이 있으니, 나날이 달은 차오르지만 몇 달씩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지갑은 얇다 못해 텅 비었다.

올해 체불 임금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8월 말까지 체불액은 9471억 원으로 이미 1조 원에 육박했다. 피해 근로자만 21만 명이 넘는다. 지난해보다 근로자는 12%, 체불액은 11% 급증했다. 경기 악화와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다.

광주·전남의 임금 체불 접수자 수도 지난 7월 1만1206명으로 지난해 9330명보다 1876명 늘었다. 조선실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전남 서남권의 임금 체불은 133억200만 원(36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억1800만 원(2520명)보다 41%나 증가(전국 8.1% 증가)했

다. 전남 동부권 역시 임금 체불이 96억 31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6% 증가했다.

해마다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체불 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산은닉이나 도주 등으로 제재 사유를 제한한다. 때문에 실제로는 수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해도 100만~200만 원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재산 은닉, 집단 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중하게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우울한 명절을 맞는 근로자가 없도록 당국과 사업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은 자신은 물론 딸린 식솔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 아닌가.

無 等 鼓

한가위 대명절을 앞두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바로 벌초다. 명절이 다가가기 전에 서둘러 마쳐야 마음이 홀가분하다. 자신이 못하면 대명절에 맡겨서라도 하는 것이 후손의 도리인 듯싶기도 하다. 일이 너무 바빠 명절에 벌초를 못할 경우는 동네 어르신들의 입담에 오르기 십상이다.

벌초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가운 가을벌에서 불면하게 쪼그려 앉아 오리 걸음을 하듯 서투른 낫질로 무성한 풀을 베노라면 일은 더디고 이마엔 땀이 비오듯 흐른다. ‘풀썩’에서 불썩 땀이나 말

지난 주말에 고향을 찾아 형님과 함께 벌초를 마쳤다. 형님이 예초기를 구입한 때는 25년 전이다. 일 년에 단 한 차례 사용하는데도 ‘일발 시동’이 걸리고, 칼날은 몇 차례 교체했지만 여전히 낫고집 없이 ‘쎽쎽’ 돌아간다.

주변에서도 여기저기 돌아가는 예초기 엔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추석을 열흘가량 앞두고 후손들의 벌초 작업이 한창인 까닭이다. 요즘엔 자녀들이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벌초 작업에 동

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 부모 세대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상들의 산

소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으리라. 머지않아 자녀 세대는 성묘는커녕 산소 위치조차 찾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핵가족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묘제(墓制)가 등장해야 할 듯싶다.

최근 늦더위 속에서 벌초 작업을 하며 쓰러지거나 말벌에 쏘이고, 예초기에 다치는 사고가 속출했다. 벌초는 추석 쇠거의 첫걸음이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며 벌초와 성묘 풍속이 어떻게 변할지 자못 궁금하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벌초 단상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안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만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